광주 민간공원 특례지구 학생 배치 난항

1·2단계 9개 지구 중 3곳, 과밀화 심각해 수용 불가 상태

일방통행식 행정 한몫·市-교육청 뒤늦게 TF구성 논의

광주시가 공원일몰제에 맞춰 장기미집행 민간공원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대부분 확정한 가운데 아파트 신축에 따른 학생 배치 문제가 새로운 행정 과제로로 떠오르고 있다.

증축이나 시설 재배치가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화가 이미 심각해 수용 불가 상태여서 시와 교육청이 뒤늦게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려 묘책 찾기에 나섰다.

22일 광주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차례 공모를 통해 1단계 4개 지구, 2단계 5개 공원 6개 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했다. 중앙 1, 2지구는 탈락업체의 이의신청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됐다.

1단계 마륵공원은 호반베르디움㈜, 송암공원은 고운건설㈜, 수랑공원은 ㈜오렌지이앤씨, 봉산공원은 제일건설㈜, 2단계 중앙공원 1지구는 ㈜한양, 중앙공원 2지구는 ㈜호반, 중외공원은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은 ㈜라인신업, 운암산공원은 우미건설㈜, 신용공원은 산이건설㈜이 사업권를 따냈다.

1단계 지역에는 5300여 가구, 2단계 지역에는 9800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10개 지구 가운데 최소한 3곳은 학생 배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아파트 건립과 입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모두 과밀화가 논란의 핵심이다.

실제 1단계 송암공원 주변 효천초등학교의 경우 당초 36학급 규모로 건립됐고 이후 학생수 증가로 조만간 40학급이 넘어설 예정인데, 공원 특례사업으로 2500여 가구가 추가로 입주하면 소위 '콩나물 교실' 수준을 넘어 수용 불가도 우려되고 있다.

운암산공원 인근 한울초교와 중외공원 인근 연제초교도 각각 26학급과 40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에 수천가구 규모의 신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수용 한계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나머지 7개 지역은 증축이나 시설재배치 등을 통해 인근 초등학교로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이 역시 정밀 안전진단과 설계 변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같은 학생 배치난(亂)은 교육수요에 대한 촘촘한 예측은 뒷전으로 미룬 채 개발 행정을 앞세운 결과로, 예견된 고민이라는 지적이다.

통학거리 관련 현행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하되, 통학거리는 1.5㎞ 이내로 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발주처와 사업자, 교육 당국간의 꼼꼼한 업무 조율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학교용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돼 있으나 협의는 뒷전으로 밀렸고, 되레 4000가구 이상일 경우 교육부 투자 심사를 거쳐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는 조항을 피해 중앙공원의 경우 3362가구와 754개구로 분할해 꼼수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단계 특례사업 과정에서는 수정 공고를 통해 학교용지 확보 조항을 삭제하고 고도제한 내용을 추가해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도 나왔다.

시는 곳곳에서 학생 수용에 문제가 발생하자 뒤늦게 교육청에 "머리를 맞대자"고 요청해 조만간 TF팀을 꾸려 묘책을 찾을 계획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늦은 감은 있지만 학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시, 사업자 등과 손잡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년 이상 미집행돼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실효되는 광주지역 일몰제 대상 공원은 25곳이며, 전체 면적 11.01㎢ 중 국유지가 3.08㎢, 사유지가 7.93㎢다. 공원 조성에는 사업비 2조7000억원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시 예산을 투입해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으로 1단계 때는 총면적 5만㎡이상 공원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공원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의 부지에는 비공원 시설 설치가 가능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했고, 2단계에서는 비공원 면적을 평균 9.3%로 대폭 축소하고 시민심사단 권한을 강화했다.

서은홍 기자

화려한 패션 메이크업 2019 코리아 헤어 디자인 아트 페어가 22일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에서 실시된 가운데 패션 메이크업 부분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열정을 다해 기량을 뽐내고 있다.

순천시 5급 공무원, 회식자리서 여직원에 성적 폭언 '물의'

순천시청 감사실은 5급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성적 폭언을 했다는 신고에 따라 감사를 벌이고 있다.

22일 순천시와 순천시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1일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사무관 A 씨는 여직원 B 씨에게 성적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폭언을 했다는 직원들의 진술이 잇따랐다.

A 씨는 남자 직원을 야단치는 과정에서 B 씨가 남자직원을 두둔하자 갑자기 둘 사이 특별한 관계를 언급하는 폭언을 했으며, 폭언을 듣고 당황한 B 씨는 밖으로 뛰쳐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울고 있는 것을 본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B 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순천시의 A 씨 직위해제 및 전남도의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는 A 씨와 회식 자리에 있던 직원을 상대로 당시 상황과 폭언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두레청과 채무 불법상환 의혹

M주택산업 대주주 한 모 회장이 농업회사법인 한두레농산(주)(이하 한두레농산)의 분식회계를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두레청과(주) 설립증자과정에서 유용한 협력업체 채무를 불법 상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인인 모아주택산업의 자금을 대주주 개인이 유용해 특수관계자인 협력업체가 그 채무를 상환했다.

두레청과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으로 대출받아 한두레농산의 분식회계를 통해 한 모 회장의 채무를 변제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서은홍 기자

전남 공무원 차량서 숨진 채 발견

광주에서 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께 서구 한 주차장에서 전남지역 공무원 A(4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백혈병 환자였던 외아들이 숨진 뒤 주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불법 후원금 제공 혐의 조합장 후보 검찰 고발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한 단체에 후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선거인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김정현 지도과장은 "조합장 선거일을 50여 일 앞두고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가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오는 3월13일 실시한다.

서은홍 기자

면허증 위조해 의약품 조제 30대 여성 구속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약국에 취업해 의약품을 조제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공무서 위조·부정행사 혐의로 A(31·여)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리 위조한 약사 면허증을 이용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울산과 부산, 경남 일대 약국 8곳에 단기고용 약사로 취업,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짧게는 하루, 길게는 8일 가량 한 약국에서 일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도 약국에서 일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단기고용 약사를 채용할 경우에도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의무규정을 만들도록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5회 적발 30대, 또 만취운전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는 30대 운전자가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2일 A(38)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22분께 만취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부산진구 범일시장 앞 도로까지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75%로 나타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만 5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112신고센터에 "연산동에서 범일동 방향으로 음주운전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112상황실은 음주차량의 예상 이동경로에 순찰차를 집중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신고 4분 뒤 범일시장 앞 도로에서 음주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뒤쫓으며 정지신호를 보냈지만, 음주차량은 비상깜빡이를 켠 채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계속 도주했다.

이에 경찰 순찰차 여러 대가 음주차량을 에워싸며 약 50m 가량을 더 추격한 뒤 앞뒤를 가로막아 차량을 세운 뒤 A씨를 검거했다.

뉴시스